성곽마을 소식을 한자리에

성곽마을 소식지

2021 11 NOVEMBER vol.23

발행 및 편집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의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citywall_village@naver.com

제5회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랜선 나들이



2021년 가을, 제5회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걸어서 성곽마을 속으로는 100%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성곽마을 랜선나들이!〉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통해 한양도성의 유명 장소와 성곽마을 거점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스탬프투어를 진행했는데요. 총 참여자 2,400여명, 4개 이상의 장소를 방문하여 적극적 응모를 한 인원이 666명에 달했습니다. 총 500개의 성곽마을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준비했는데,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응모자 666명 전원 텀블러를 증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대/기자

성곽마을 박물관 큐레이터, 시범운영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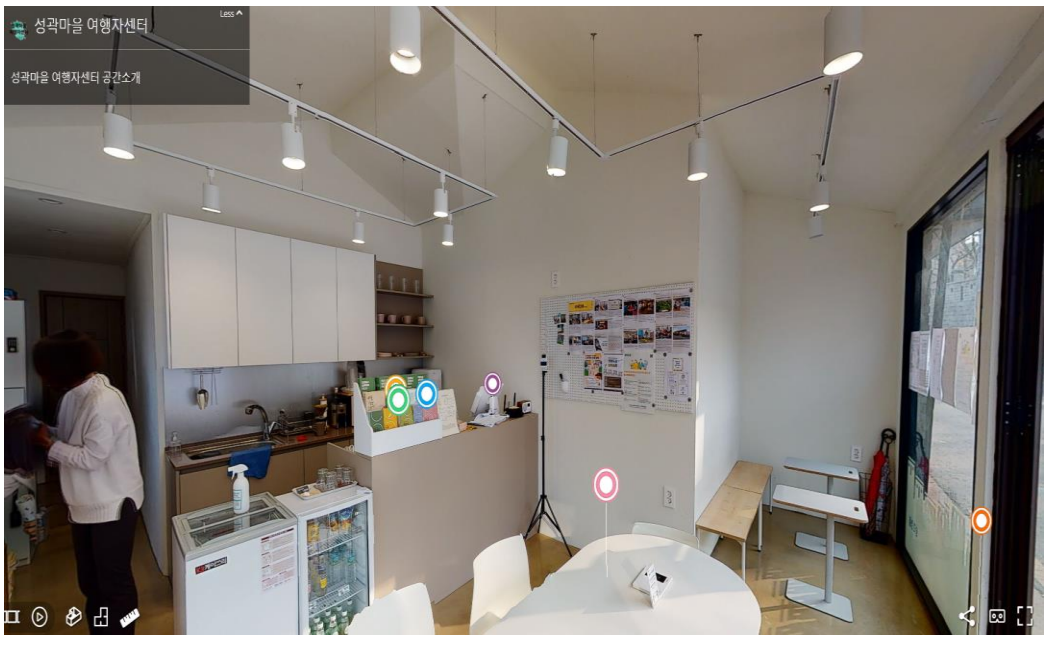


8월 말부터 시작한 성곽마을박물관 큐레이터 양성과정이 기초과정 8회, 심화과정 10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9명의 교육생이 성곽마을 박물관 큐레이터로 양성되었습니다.

심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예비 성곽마을 큐레이터들은 A, B 두 개로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시뮬레이션까지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현주/기자

성곽마을 메타버스로 만나는 3D 체험 영상 제작



성곽마을 박물관과 성곽마을 여행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3차원 영상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성곽마을의 실제 거점공간을 3D로 만들어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성곽마을 박물관과 여행자센터를 느껴 보세요.

- 성곽마을 여행자센터 https://han.gl/XFvPZ
- 성곽마을 박물관 https://han.gl/XtZOR

김종대/기자

성곽마을 사람들, 대학로에서 번개모임 열어



11월 20일(토) 성곽마을 사람들이 대학로에서 뭉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2년여 만에 마을 대표님들, 여러 성곽마을 주민들이 연극 관람과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관람한 공연은 광희장충 성곽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리 배우의 “엄마의 레시피”라는 가족극입니다. ‘치매’라는 모티브를 통해 현대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인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나카이가와 아츠코/기자

성곽사협 10월 정기이사회 개최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10월, 성북플랫폼 마당에도 낙엽이 이리저리 떨어져 있네요 10월 14일(목) 성곽사협 정기이사회에서는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2021 주민한마당 최종기획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회의가 끝나도 식사 한끼 함께 하지 못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지난날이 그립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김종대/기자

수월암 마인드 푸드 협동조합 여행자센터 방문



11월 16일(화) 서경대 등 외국인 대학생들이 참여한 북정마을 탐방을 두 차례 함께 진행한 인연이 있는 수월암(마인드푸드협동조합)에서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목)에는 수월암이 성곽사협을 초대해 주셔서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마인드푸드 협동조합을 이끄는 두 스님과 성곽마을 및 성곽사협의 매력과 잠재력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김다영/기자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 낙산탐방



10월 25일(월)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사회연대은행)'의 워크숍 일환으로 〈성곽마을 낙산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사무실이 혜화·명륜 성곽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4월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역사회협의체의 성곽마을 낙산구간 탐방에 참여하신 담당자 분의 좋은 기억으로 기관 탐방을 추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42명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해설사 3명과 보조강사 3명이 함께 팀을 나눠 시간 차를 두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한양도성의 역사 해설과 함께 성곽길을 거닐며 각자성석을 찾아보고, 성곽마을 재생과 성곽사협의 이야기가 담긴 성곽마을 박물관 전시를 관람한 후 낙산공원 정상에서 마무리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매력을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김다영/기자

성곽마을 플로깅(쓰담걷기)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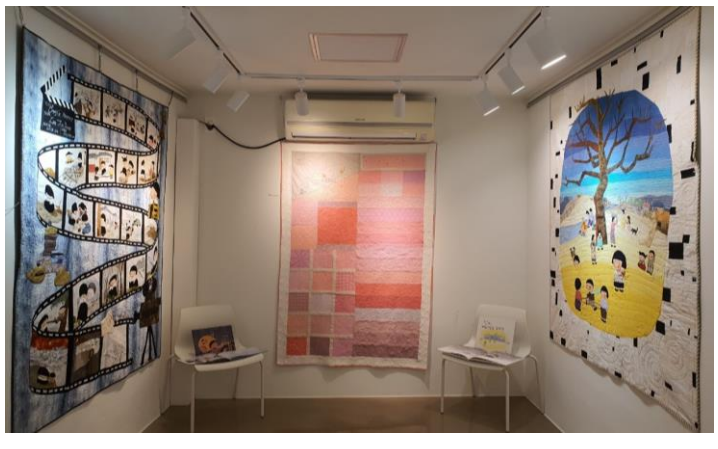


11월 29일(월), 성곽사협과 ㈜착한여행이 함께 하는 〈성곽마을 플로깅(쓰담걷기)〉 캠페인 1, 2회차가 낙산공원과 장수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랜선나들이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해설도 들으며 성곽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주변 환경도 정리해 봤습니다.

성곽마을 플로깅 캠페인은 총 6회에 걸쳐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12월에는 부암과, 광희·장충 성곽마을 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워크온(Walk On)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월 27일(토)부터 12월 12일(일)까지 플로깅 챌린지도 진행하고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포켓 손난로 보조배터리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김종대/기자

성곽마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성곽너머 창신동 '단지'이야기〉 초대전 열려.





11월 16일(화)부터 12월 19일(일)까지 성곽마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성곽너머 창신동 '단지'이야기〉 초대전이 열립니다.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1시와 14시 2회차로 전시를 운영하며, 네이버에서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단지는 서민화가 박수근의 〈아기보는 소녀〉가 모티브가 되어 탄생한 캐릭터로 단지 이야기는 어른의 눈에 간직하고 싶은 어린시절의 장면들을 추억의 시간으로 새긴 기록입니다. 창신동에서 낙산을 넘어 장수마을까지 놀러 온 단지에게 성곽마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설/기자

혜화·명륜권 소식

혜화·명륜 성곽마을 대표 이주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탐방 운영







혜화·명륜 성곽마을 마을여행 협동조합 돌레길은 9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탐방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탐방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화·명륜 성곽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의 탐방은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운영되었는데요. 지역의 꿈인 '혜화초등학교 어린이', 입학은 했지만 코로나로 온라인 강의만 진행되어서 캠퍼스타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균 성균관대학교 신입생', 성균관을 더 잘 알고 싶은 '성균관대학교 유학생', 그리고 '성곽마을 주민'이 대상이었습니다.

돌레길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여행 상품을 이용해 네 번의 탐방 중 세 번은 '성균관 유생과 반촌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어린이와 외국인 참여자에게는 육예 체험, 성인 참여자에게는 유생복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혜화 느린마을여행'으로 오일파스텔 그림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탐방객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즐겁게 탐방과 체험에 임하며 성균관이 있는 반촌으로서의 우리 성곽마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탐방객들을 보며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탐방을 통해 혜화·명륜 성곽마을 탐방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도 수집하고, 홍보채널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지혜/기자

마을공간 이해하기 활동 진행











10월 7일(목) 혜화·명륜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들이 마을공간 탐방에 나섰습니다.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들은 종로 마을자치센터의 '성곽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의 공동체 공간을 잇는 '공간 잇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의 탐방은 실제로 마을에 어떤 공간들이 있고 어떻게 마을여행과 마을공간, 그리고 앵커시설인 '이루재'를 연결할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공간을 체험하고, 공간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하기 위한 첫 활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마을공간은 혜화 로터리 주유소 옆 작은 골목길에 있는 도예공방 '08 스튜디오' 입니다. 저희는 물레 작업에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한 사람당 2개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이루재에서 사용할 화병과 그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튜디오 공간도 넓고 작가님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탐방객이 이용하기에 정말 쾌적한 조건이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작가님이 우리마을 출신이시더군요. 마을에서 자라나고 자리를 잡아 공간을 운영하는 작가님을 보니 우리 마을이 참 매력 있는 마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혜화·명륜 성곽마을에 살고 싶도록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발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공간 잇기 활동과 마을여행 활동, 그리고 이루재에서의 성곽마을 가치공유와 공동체 활동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 한 걸음이 되겠지요?

조영남/기자

삼선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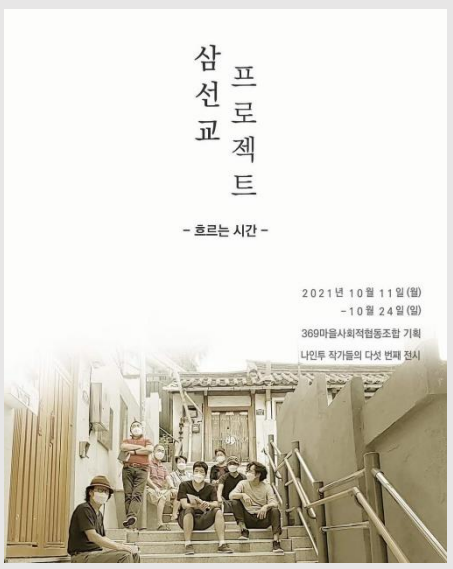
삼선 369 성곽마을 대표 김희준

10월 11일(월)부터 10월 24일(일)까지 369 성곽마을의 앵커시설인 '369 예술터'에서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한 나인투 작가들의 '삼선교 프로젝트 : 흐르는 시간'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운영시간은 11시부터 19시까지 입니다.

삼선교 프로젝트는 전시를 통해 아홉명의 작가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삶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과 동시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작가 개개인의 고유한 조형 언어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작가들의 작업 속에서 '시간' 또는 '시간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의미가 갖는 기호나 상장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 이후에도 369 예술터에서는 글/그림/목소리로 즐기는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이승은 작가의 '사선으로 걷기' 등 다양한 전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369마을 페이스북 페이지



광희·장충권 소식

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이승옥

외국인과 함께 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





11월 20일(토) 광희·장충 성곽마을 모이소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를 진행 했습니다. 폴란드 사람과 일본 사람이 광희·장충 성곽마을 사람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나카이가와 아츠코/기자

《착한 돼지 엔젤피그》 냅킨 냄비받침 만들기



《착한 돼지 엔젤피그 솜씨나눔》 10월 2일(토) 광희 장충 성곽마을 모이소에서는 '냅킨 냄비 받침'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냅킨으로 예쁜 냄비받침 탄생하다니 신기합니다~ 참 예쁘지요! 모이소에서는 점점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늘어가는 중입니다.

나까이가와 아츠코/기자

제8회 장충동 마을행사 성황리에 종료



10월 29일(금) 장충동 마을행사가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속에 남소영 광장에서 '당장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팬플룻 및 오케스트라 음악회], [장충동 구석 구석 사진전], [일상회복 응원쪽지 남기기]등입니다. (사)중구마을넷,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과 같이 민민협력 사업으로 환경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탄소저금통(푸른아시아 제공)을 나누어 드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나까이가와 아츠코/기자

다산권 소식

다산 성곽마을 대표 이계용

다산동 골목축제 진행







다산동 골목축제가 11월 25일(목) 감나무골 입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 째를 맞이하는 골목축제는 다산동의 주민공동체 활동의 모태입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반찬을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이 골목에 나와 직접 전을 굽고 먹거리 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배은희/기자

꿀피부 지구사랑 천연비누 만들기





10월 30일(토) 다산동 주민센터 다산마루에서 주민센터와 담소정 주최로 '꿀피부 지구사랑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염증 완화와 피부 진정, 피부를 맑게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어성초 비누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주민들 모두 비누 만드는 즐거움에 빠지셨네요.

배은희/기자

손으로 꼼지락 깨강정 천아트



10월 29일(금) 다산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손으로 꼼지락 깨강정 천아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소정에서 희망지사업 마을살이분과 참여자들이 만든 깨강정도 맛 보고, 천 아트 체험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상황 중에서도 다산 성곽마을 담소정에서는 10월 중 다양한 공동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은희/기자